

관리번호 83-1968

III 급 비밀 CONFIDENTIAL

외무부

작성전보  
종별: 지급

원본

번호: LAW-1382

일시: 10181700

수신: 장관 (미북, 영재, 정문)

발신: 주 라성 총영사

제목: 김대중 강연공

공	미	83	관	당	장	관	성	관
관	주	10	국	725	장			
	국	월						
		일						

연: LAW-1273

1. 언호 김의 강연회 10.14 19:30-21:50 간 그리피스 극장에서 청중 2 천여명 참석 김상돈 축사 분동환 격려사 이신명의 축전 낭독 이어 본 강연 시작되바 강연요지 아래같음

가. 광주의거는 민주주의 염원 국민들의 소망 표현이었는데 군사 쿠테타로 군사 독재체제로 전환 되었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언론자유와 선거자유가 부정되고 있어 이의 시정 위해 동료들이 투쟁해야함.

나. 현 한국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경제의 정상화 위해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히 주어야하고 이렇게해야 명성사건, 영동사건, 조세형 강도사건 등이 일어나지 않을것임.

다. 레이건의 방한이 실현되지 않도록 미 각계 각층에 호소하고 압력 가하여야 하며 미국의 대한 정책 변경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것인바, 여러분의 지원 바람.

라. 평화통일의 기본요건은 주변 4대 강국 보장 필요하며 이것은 한국이 4대국 어느국가와도 이해관계를 편파적으로 가지지 않아야 가능하며 자신이 주장하는 통일국가 형태는 북한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공화 연방제도로서 미국이나 서독형이 아닌 소련이나 영국 형태의 연방국가를 말하는것임.

2. 금번 김대중 방본은 당지 친 북괴단체 반한 종교단체 인권단체등 반한단체를 결속 시키는 계기는 되었으나 호남 향후회와 기타 비관세력의 호응은 받지 못하였으며 강연에 소요된 경비도 충당치 못한 형편에서 ( 약 4 천불 적자 ) 1 만불의 사례비를 받아감으로서 빈축을 사고 있음.

미주국 1차보 정문국 영교국 청와대 안기 카본

III 급 비밀 CONFIDENTIAL

83.10.19 14:52  
외신 2과 통제관

0183

MP

앞으로 김대중은 레이건 대통령의 방한 저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으로 분석됨.  
본직은 김대중 발언중 미대통령의 방한 저지운운 부분을 인용 미정보 계통 ( FBI )  
에 향차 이들이 취한 행동 방향을 통고함으로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한바 있음.  
( 총영사 - 차관 )

예고 : 일반 84.6.30

예고문예 피거 일반문서보 ( 2 )  
재분류 1974.6.30 서명